

농촌사랑운동의 성과와 발전방향



오 세 헌

농협중앙회 농촌사랑추진기획 단장

1. 서 언

「농촌사랑운동」은 우리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음으로써 국민건강을 지키고 도시민과 농업인의 삶의 질을 함께 높여 나가는 도농상생(都農相生)운동이며, 나라사랑 운동이다.

농협이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함께 주관하고 농림부, 문화일보가 후원하는 이운동은 2003년 11월 11일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양재동 농협하나로 클럽에서 경제5단체장, 소비자단체, 생산자 단체장 등 사회 각계가 모인 가운데 「농촌사랑 공동 선포식」을 가짐으로서 그 시작을 알렸다.

최근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는 바와 같이 농촌사랑 1사 1촌 자매결연 사업은 전국의 많은 기업, 정부기관, 단체가 동참하여 8천6백여 쌍이 성사되었고, 운동본부의 회원은 137만명이 그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국민적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제 이 운동을 시작한지 2년이 조금 넘는 시점에서 추진배경과 그간의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2. 추진 배경

□ 60년대 이후 경제성장과정에서 농촌은 소외

3차 5개년 계획(1972~76)이 끝나면 ‘그늘진 응달과 농어촌에도 따뜻한 별이 들도록 하겠노라’고 약속했던 고 박정희 대통령은 작고하기 직전 당시 경제기획원 고위 관료

들이 비교우위론에 입각해 쌀과 농산물 수입개방을 주장하자 크게 노했다. 경제개발과정에서 뼈빠지게 희생하며 내조한 조강지처를 좀 살게 됐다고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면 누가 농촌에 남아 식량주권과 지역사회를 지킬 것인가라고 한말은 지금도 유효하다(김성훈 전 농림부장관).

□ 농업·농촌의 위기감 고조와 도·농의 갈등심화

○ 농가호당 경지면적은 1.45 ha에 불과하여, EU의 40~50 ha, 미국의 180 ha와 비교하면 매우 작은 규모로서 농업구조의 영세성과 고비용구조로 개별농업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본원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경영규모가 우리와 비슷한 중국의 경우는 국가가 가족 수에 따라 농지를 배분하고, 임금이 한국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여 생산비가 낮고 가격경쟁력이 높다.

○ 농가수는 1993년 259만 가구에서 2003년 195만 가구로 줄었고, 60세 이상 농가인구는 1990년 17.8%에서 2002년 38.2%로 늘어 나는 한편, 경영주 연령이 40세 미만인 농가호수는 1990년 14.6%에서 2002년 4.1%로 떨어지는 등 농가인구는 감소되고 고령화로 농촌사회의 활력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

○ 지난 40여년간 비농업부문은 연평균 8~9% 성장한 반면, 농업은 2~%의 낮은 성장률을 시현했다. 이로 인해 각종 계수가 말해 주듯 우리 농업의 어려움은 크게 가중되고 있다. 마치 고속경제 성장과정에서 고전적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어서 특히 도시와 농촌, 상공업과 농어

업이 각기 승자와 패자의 반대방향의 길로 나뉘어 서로 외면하며 걸어오고 있다(김성훈 전 농림부장관).

- GDP 대비 농업비중 감소

(’70) 23.7% → (’85) 10.7% → (’03) 2.7%

-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 (’95) 95.1% → (’02) 73.0%

- 농가부채 및 부채비율 증가

(’03) 농가부채 682만원 → (’03) 2,697만원 (295% 증가)

○ 위와 같이 도·농간 소득격차가 확대 되면서 농업인의 상대적인 박탈감이 심화되고 불만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우리나라의 도·농 격차는 매년 심화되고 있는 실정

- 일본의 경우에는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 소득보다 20~30% 높은 상황

- WTO체제가 출범한 95년 이후 최근까지 연평균 소득 증가율도 도시의 5.6%에 대해 농가는 1.7%로 매우 낮음

○ 특히 한·칠레 FTA 국회비준 난항을 겪으면서 농업계와 비농업계간의 갈등의 골은 깊어 졌다.

- 2002년 10월 24일 타결된 한·칠레 FTA 협상안이 2004년 2월 16일 국회에서 통과되기까지 농업인 단체 등의 강렬한 국회비준 거부투쟁과 선거를 의식한 여·야 의원들이 국회의 비준동의에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함에 따라 무려 1년4개월 소요되었다.

- 2003년 12월 30일 국회는 본회를 열어 한·칠레 FTA 비준안을 상정하였으나 농업계의원들의 강렬한 반발로 표결에 실패하였다가 결국한·칠레 FTA 비준 동의안은 2004년 2월 16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나 농업을 둘러싼 도·농간 시각차가 극명하게 대립 표출되었다.

○ 또한 일부에서는 ‘농촌이 대기업 발전의 희생양’이라는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농업과 기업간의 갈등으로 비화되고 수출로 많은 이익을 내고 있는 대기업들이 시장개방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농업계를 제대로 배려하지 않는다고 보면서 한·칠레 FTA 협상의 백지화를 촉구하는 등 갈등 문제가 심화되었다.

□ 농업·농촌가치 재인식

농업·농촌은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전국민에게 이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 농업은

단지 쌀과 채소·과일등을 생산하는 1차적인 기능 외에 식량안보와 홍수조절·대기정화·경관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기능을 갖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관련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농업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공익적 가치가 더 크다고 한다. 또한 농업·농촌은 수자원 확보·아름다운 경관 및 전통문화보전·휴양 및 레저공간 제공기능 등을 하고 있다 이밖에도 농업은 정서 함양이나, 지역사회유지 등 농촌의 사회문화적 기능까지 있다. 이와 같은 국민의 식량창고 역할과 농업의 다원적 가치는 최대 연간 82조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 도시문제에 대한 반성

경제성장에 따라 도시는 소득은 증가하였으나 지난 40여년간 농촌인구의 대도시로의 유입은 장거리 통근, 교통 혼잡비용 증가, 진동·소음공해, 대기·상하수도원 오염, 제한된 녹지, 가공식품의 범람, 과밀화, 각종범죄증가, 획일화와 개성의 매몰, 심신 건강의 허약 등 심각한 도시문제를 낳고 있다. 농민들을 농촌에 그대로 살게 하는 것이 도시로 이주하여 사는 것보다 17배나 저렴한 비용이 드는 정책이라 한다.

□ 오늘의 농업·농촌문제는 농산물시장에 대한 개방과 고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농업인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며 국민 모두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로서 농촌과 도시가 상호교류를 통해 농업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모색코자 이운동을 시작했다.

3. 추진현황

□ 국민과 함께한 농촌사랑운동

이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2003년 12월 11일 양재동 농협하나로클럽 광장에서 대통령, 경제5단체장, 소비자·시민단체, 농업인 등 7,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민과 농업인이 함께한 ‘농촌사랑 공동선포식’을 가짐으로서 농촌사랑운동을 전국에 알렸다.

2004년 6월 8일 강원도 홍천군 명동리 마을에서 기업과의 농촌사랑 협력조인식 및 1사1촌 자매결연 발대식을 가짐으로서 그 시작을 알렸고 2004년 10월 25일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발족식을 통해 이 운동이 민간이 주도하는 운동으로서 체계를 갖추게 되었

다. 한편 운동본부는 2006년 2월중으로 사단법인으로 법인격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 경제단체5단체와 시민단체, 학계, 언론계 등 각계 각층에서 농촌사랑운동에 뜻을 같이해 발족한 범국민협의체
- 조직 구성
 - 공동대표: 경제5단체장, 경실련대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농협회장
 - 고문, 이사: 사회 각계 대표로 구성
 - 운영기구: 사무국

□ 대대적인 농촌사랑운동 전개

이와같은 조직 및 사업체계를 갖춘 운동본부와 농협에서는 2004년도를 농촌사랑 기반을 다지는해, 2005년도를 농촌사랑 확산의 해로 삼고, 농림부와 문화일보의 후원아래 '농촌사랑 1사1촌 자매결사업'을 정부, 기업, 각종 단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전개하였고, 아울러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의 회원 100만명 확보운동도 적극 펼쳤다.

또한 2005년 10월 13일에는 「농촌사랑 도농상생한마당」 행사 개최하여 농촌사랑운동이 범국민운동로서 성공적인 확산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 했다.

- 일자: 2005. 10. 13(잠실 올림픽주경기장)
- 주요 참석자: 대통령, 경제5단체장, 도지사, 국회의원, 1사1촌 참여기업 CEO 및 임직원, 농협회장 등 도시민, 농업인 8만여명 참여

4. 농촌사랑운동의 주요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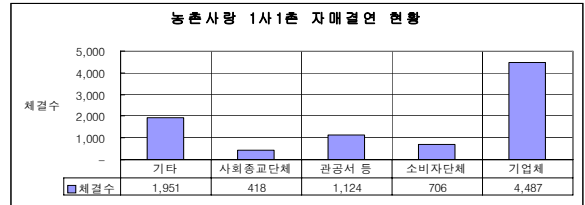
①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발전하며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

□ 사회각계의 농촌사랑운동 참여 확대로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발전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하겠다.

○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24개 정부중앙부처와 삼성그룹, KT, 한국전력, 포스코, SK, LG그룹 등의 기업체, 조계사 등 종교단체, 서울대를 비롯한 학계 등 사회 각계가 참여하여 현재 8,677여개 기업 및 단체가 농촌사랑 1사1촌 운동에 동참하여 05. 12월 현재 이 운동을 시작한

지 2년여 만에 77만여 명이 도·농교류에 참여하였다.

※ 기업체 4,487 소비자단체 706, 사회/종교단체 418, 관공서 등 1,124, 기타 1,951



○ 또한 일반국민, 기업(단체)를 대상으로 한 농촌사랑 범국민운동 회원모집 50여일만에 100만 회원 달성하고 현재는 137만 회원을 확보하였는 바, 이제는 기업체뿐만 아니라 일반국민까지 참여하는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확산되었다.

□ 이렇게 계속 도시민과 기업이 참여해 준것에 힘입어 농촌의 고령화와 소득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농촌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 넣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농촌은 활력을 되찾고 있다.

특히, 1사1촌 자매결연은 일방적으로 지원만 하는 운동이 아니라 오히려 기업임직원을 비롯한 도시민이 농촌을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켜 행복해질 수 있는 도·농상생(都農相生) 운동이라는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농촌에 대한 사회적 공헌활동을 전개하여 기업의 이미지가 제고되는 한편, 직원들의 주말여가를 건강한 휴식공간인 농촌에서 저렴하게 보낼 수 있으며 특히 노사가 함께 농촌사랑 운동에 참여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화합을 이루어 생산성이 향상되는 효과 등 다양한 결실을 얻고 있다. 또한 현재 화두가 되고있는 블루오션전략에 있어 잠재시장인 농촌에 새로운 사업영역을 앞서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장점도 있는 것이다.

- 도시와 농촌의 상호교류로 인한 “농촌의 활력화”

◇ 삼성전기-강원 화천군 토고미마을 사례

- 800여명의 삼성전기 임직원 가족 마을 방문, 30여차례 회사 워크숍 개최, 매년 5월 마지막주 토요일을 ‘삼성의 날’ 지정, 자매결연 마을에서 축제 개최

□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의 발전 가능성

○ 위와같이 농촌사랑운동은 새마을운동과 같은 범국민적 운동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이며 농업·농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고, 초기운동으로서 국민 인지도, 자매결연 참여 등 성과가 가시화됐다.

농촌사랑운동은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국민운동”으로서 1970년대의 새마을운동이 정부주도의 ‘잘살아 보자’는 운동이었다면, 농촌사랑 운동은 국민모두가 참여하고 도시와 농촌이 함께 균형발전하자는 민간주도의 운동이다.

○ 국무총리 산하 정책평가위원회에서 “2005년 상반기 정부 우수 정책사례” 선정되는 한편 일본, 중국 등에서도 1社1村을 벤치마킹하고 언론에 자주 보도되기도 하였다.

- 일본경제신문 (’05. 3. 28일자 1사1촌 특집 보도)
- “기업의 농촌지원은 제3의 길”에서 1사1촌 운동의 상세한 내용과 함께 하이트맥주, 삼성전기 등의 사례 보도
- 일본농업신문(7회 기획연재)
- ’05. 10. 9-15(5박 6일)에 걸쳐 일본농업신문 기자 특별취재: 6회에 걸쳐 농촌사랑운동 기획 연재(’05. 10. 18~25일까지)
- “세계는 지금” 코너 특집 보도(’05. 7. 18일자)
- 中國에서도 1사1촌 벤치마킹 희망(문화일보 ’05. 5. 23일자 보도)
- 일본 시즈오카현 1사1촌 벤치마킹 방문(’05. 10. 17부터 1주일)
- 방문자: 시즈오카현 국장 포함 8명
- 의의: 역사적으로 한국농업이 일본농업보다 앞서가는 첫 사례로 한국농업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

② 농업·농촌의 새로운 변화이다. 기업 도시민의 농촌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농업인들의 스스로의 변화이다.

□ 1사1촌 운동을 통하여 먼저 농촌의 어려움을 기업과 단체, 기관에게 직간접적으로 알려 주고, 잊혀져 가는 농촌 문화와 농업의 가치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 국민 식량창고 역할
- 식량자급 달성 중요성 재인식(식량부족 국가 증대 추세)
- 농업의 다원적 가치등 연간 82조원 (농경연 자료)
- 도시민의 건강과 휴식의 장소로 재인식

□ 무엇보다 농업인들의 의식변화를 유도했고 영농의욕이 고취되었다

- 농촌이 단순히 도움을 받아야 하는 곳이라는 개념에서 탈피, 농촌만의 장점을 살려 ‘상품’으로 연결하는 마인드가 형성됐고 도시민들의 관심 확대로 친환경 농산물 등 우수농산물 생산, 쾌적한 농촌환경 제공 등 농업인의 의식개혁과 영농의욕이 고취되는 효과도 있었다.

◇경기 이천 부래미마을

- 마을 자체를 상품화하기 위해 주택을 재단장하는 ‘예쁜 농촌꾸기’ 운동을 펼치고, 옆마을의 폐교를 활용해 영어마을로 변신 시도 중

□ 경제적으로도 가시적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까지 감안하면 그 가치를 헤아리기가 어렵다고 한다.

○ 농산물직거래, 농촌관광 등을 통한 소득증대 등 “경제적 효과 외에도 도시민에게 농업의 소중한 가치를 인식시키고, 농촌마을과 업인들에게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등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효과까지 포함하면 1사1촌의 경제적 효과는 수조원에 이른다” (월간 전원생활 ’05년 10월호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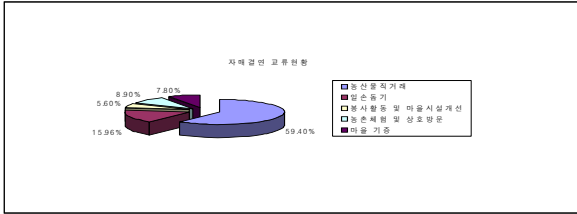
- 농산물직거래, 농촌관광 등을 통한 농촌 소득증대
- ⇒ 1사1촌 교류금액 ’05년 12월 현재, 454억원에 이룸
- ※ 농산물직거래 278억, 일손돕기 72억, 농촌체험 37억, 마을기증 31억, 봉사활동 22억, 기타 12억원 등

◇삼성사회봉사단 농산물직거래 사례

- 29개 삼성계열사 81개 사업장이 지금까지 농촌마을에서 구입한 농산물이 23억 1300여만원어치에 이룸

◇경찰청 - 직두1리 사례

- 경찰청과 교류하고 있는 경기 포천 직두1리 마을은 품목별로 생산량의 40~100%를 직거래로 판매



③ 도시와 농촌의 새로운 관계 정립

□ 도시와 농촌의 행복한 共生운동

○ 농촌사랑운동은 과거와 달리 도시에게 농촌을 위한 일방적인 지원을 강요하지 않고 우리농업에 활력을 불어 넣음으로써 국민건강을 지키고 도시민과 농업인의 삶의 질을 함께 높여 나가는 도농상생운동임을 인식시켰다.

◇ 새롭식품 - 경남 하동 상평마을 사례

- 국산농산물 가공업체인 새롭식품은 회사부도 위기에서 우리 농산물의 중요성을 인식, 자매결연 마을과 계약재배를 하여 최고 품질의 '금강밀'과 '보리'를 공급받아 회사 신뢰 회복을 통한 재도약

◇ 우리은행 - 안성 내곡마을 사례

- 배·포도나무와 텃밭을 우리은행 임직원 대상으로 공개분양, 황영기 행장을 비롯해 302명 분양 신청

5. 향후 발전 방향

운동본부에서는 금년도에 300만명의 회원확보와 1만5천여 자매결연 쌍을 성사시킬 계획이다. 이 운동이 농촌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으로 자리매김 하고 무엇보다 초기운동으로서 국민에게 알리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양적인 면도 중요하였지만 질적인 측면도 강조되어야 하고 내실 있는 운동으로 정착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 이를 위해 농협과 전경련이 운영하고 있는 농촌사랑법 국민운동본부에 다양한 형태의 도농교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기업과 농촌이 상호 필요에 의한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우수한 농촌마을 지도자와 농촌사랑리더 양성을 위하여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농협대학 내에 “농촌사랑지도자연수원”을 2006년 2월 22일 개원을 하였다.

□ 미래의 농산물 수요자인 자라나는 청소년 세대에게

도시 청소년에게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교육을 통해 농업 농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과 어메니티 체험을 통한 심성순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조하여 1校1村 자매결연 추진할 계획이다. 청소년시기부터 친환경 우리 농산물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고 농촌체험을 통해 우리 농업의 중요성을 갖도록 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농촌체험 및 교류유형〉

- ◇ 농촌(농사)체험: 모심기, 벼베기, 채소재배, 사과따기 등
- ◇ 자연체험: 등산, 하이킹, 식물관찰, 자연지리, 환경학습 등
- ◇ 농촌생활체험: 전통문화, 공예, 먹거리체험, 팜스테이 등

이를 위해 도시학교 1校1村 자매결연과 농촌체험학습 활동을 제도화 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웃 일본이나 서유럽 선진국의 경우에는 농촌체험농장 조성 및 교류운영비를 지원하고 자매결연마을과 직거래를 통한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하는 한편 지도교사(전담교사 또는 보조강사, 마을지도자 등) 지정·운영하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일본의 사례〉

- ◇ 도쿄都 무사시노市の Second School 농촌체험학습(세컨드 스쿨)을 전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비용 및 인력을 시청과 시교육 위원회에서 지원

□ 자매결연 형태 다양화로 교류촉진 도모

○ 4계절 여가수요가 있고 친환경농업지역 등 여건이 성숙된 마을에 대해 多社1村형으로 확대하여 1개마을에 대하여 집중적인 지원으로 마을의 자생력을 키우는 자매결연 형태로 발전시켜나가기 하겠다.

【多社1村형 마을사례】

- 화천 상서면 토고미 마을(삼성전기, 국제무역, 농촌경제연구원)
- 교류내역: 교류인원(2,875명), 직거래, 마을기증 등 (676백만원)

- 여주 금사면 상호리 마을(삼성네트워크, 외교통상부)
 - 교류내역: 교류인원(797명), 농산물직거래 등(27백만원)
- 전북 진안 동향면 능길마을(KG케미컬, 한국선물협회 등 5개 업체)
 - 교류내역: 교류인원(205명), 농산물직거래 등(11백만원)

○ 대기업 등 종업원수나 사업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인 업체 대상으로 역량있는 기업이 1社多村형으로 교류를 확대하여 많은 농촌마을을 아우를 수 있도록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겠다

- 대기업 본사(본점), 계열사 규모가 1,000명 이상인 기업체

- 【 1社多村형 기업사례 】**
- 현대자동차서비스(전국의 41개 마을과 자매결연)
 - 삼성그룹 계열사(전국의 81개 마을과 자매결연)
 - 한국전력공사(전국의 200개 마을과 자매결연)

○ 이밖에도 종교단체와 농촌마을과의 자매결연을 맺는 1교1村형으로 교류확대한다든지 인근 군부대와의 1部隊1村형 자매결연 등으로 그 교류형태를 다양화 하여 정기적인 직거래장터, 종교인 연수 및 봉사활동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 【 종교단체의 1교1村형 사례 】**
- 대한불교조계종(조계사)과 강원 양양군 관내 5개 마을 자매결연

□ 농촌사랑운동에 있어서 1사1촌 자매결연사업과 함께 한 축인 운동본부 회원을 통한 활동 및 사업 전개가 중요하다. 농촌사랑운동본부 회원에 대해서 농촌사랑의 메신저로 육성하고 각종 봉사활동 참여와 우리농산물 애용하기, 음식점 농산물 자율표시 활동, 우리 농촌의 가치 바로알기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모든 국민이 이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선도자적인 역할을 다하도록 활동영역을 넓혀 나가야겠다.

이 운동 참여를 원하는 기업·단체·개인은 인터넷농촌사랑 홈 페이지(www.ifarmlove.com)를 통하여 회원가입, 자매결연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가까운 농협에 찾아 가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끝으로 이 운동을 통하여 도·농이 相生하는 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농촌은 도시에게 휴식공간과 친환경농산물을 제공하고 도시는 농촌을 적극 이용할 때 1사1촌은 국민모두의 행복한 운동으로 발전될 것이다.